‘수영 마라톤’ 오픈워터 여수에서 열릴까

FINA 대표단 ‘2019 세계수영’ 점검차 15일 광주 방문

하이다이빙 후보지 아시아문화전당 등 둘러볼 예정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 점검을 위해 오는 15일 국제수영연맹(FINA) 대표단이 광주를 찾는다. FINA 대표단은 대회 현안 중 하나인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종목의 여수 개최 방안과 하이다이빙의 개최 후보지도 살펴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또 ‘인류 평화와 대화합의 장’이라는 대회 비전이 발표되는 등 개막 1년 8개월을 앞두고 대회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15~17일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 와킨 푸욜 시설위원장과 FINA 임시풀 후원사인 밀싸풀의 임원 트레버 티파니 등 3명이 광주를 찾는다.

와킨 푸욜 시설위원장은 수영대회 경기장 시설의 설계를 맡고 있으며, 밀싸풀은 FINA 주관 각종 대회 경기장 시설 공사와 후원을 맡은 회사다.

이들은 경기장 시설 계획과 설계 등에 자문하고, 경기장으로 내정된 남부대수영장(경영 다이빙), 진월테니스장(수구), 염주체육관(아티스틱수영), 여수(오픈워터 수영), 광주 도심(하이다이빙)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조직위가 대회 흥행과 여건 등을 고려해 장성호에서 여수로 장소를 옮긴 오픈워터 수영장과 아시아문화전당 등 하이다이빙 후보지로 꼽히는 장소에 대한 FINA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직위는 이날 ‘인류 평화와 대화합의 장’이라는 의미의 ‘PEACE GWANGJU’라는 대회 비전도 발표했고, 대회 홍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직위는 이달 말까지 광주시청에는 대회 홍보관을 설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광주공항, 광주송정역 등지에 대회를 알리는 조형물을 세우기로 했다.

또 수영대회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과 홍보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9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 신청자 6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관계기관 협약식과 자원봉사 교육 아카데미 개교식을 한다.

한편,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한 스폰서십 마케팅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직위는 현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스폰서십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건설분야 후원 의향을 밝힌 중흥건설과는 FINA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후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면서 “지역 연고가 있는 한국전력, 광주은행, 기아자동차, 신세계백화점 등에도 후원사 참여를 제안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11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207개국 선수와 임원 등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12~28일까지 17일 동안,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선수권대회는 7월29일~8월11일까지 14일간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순도 명인의 ‘씨간장’

한안자 명인의 ‘동국장’

트럼프 만찬에 오른 씨간장·동국장

담양 기순도·해남 한안자 명인 제조

전라도 전통 장, 세계 이목 집중

360년 맛을 지켜온 씨간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된장이라고 알려진 동국장이 청와대 국빈 만찬에 올라 전라도 전통 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청와대 환영 만찬에 오른 메뉴는 ‘360년 씨간장으로 만든 소스의 한우갈비 구이’와 ‘동국장 맑은 국을 곁들인 거제도 가자미구이’ 등 네 종류였다.

이 가운데 ‘360년 씨간장’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35호로 지정된 담양 기순도 명인이 제공한 전통 장으로, 햇간장을 만들 때 넣는 종자 장으로 알려져 있다. 창평 고씨 10대 종부인 기순도 명인은 종가의 비법으로 3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씨간장을 소중히 지켜오고 있다.

진한 검정색의 결죽한 씨간장은 깊은 향과 단맛이 많이 나고 진장에 비해 짜지 않다. 종가에서도 제사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며, 매년 소량씩 첨장을 하면서 맛을 지키고 있다. 이번 청와대에도 소주병 반 병 정도의 소량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기순도 명인은 “조상 대대로 귀하게 간직해 오고 있는 씨간장은 여간해서는 집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없다”며 “한식의 기본은 장(醬) 맛으로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통 장을 통해 한식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동국장’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40호로 지정된 해남 한안자 명인이 제공한 것으로, 고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우리 전통 장이다. 일반 된장보다 향이 달콤하고 맛이 진해 예로부터 조미료를 대신해 음식에 맛을 더해줬다고 알려져 있다. /이보람기자 boram@

구글서 ‘dokdo’ 치면 일본 시마네현 소속

반크 “악의적 편집 때문”

구글의 영어사이트(www.google.com) 검색창에 ‘dokdo’나 ‘takeshima’를 입력하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는 구글의 ‘악의적 편집’ 때문이라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8일 주장했다.

먼저 ‘dodko’를 치면 위키피디아에 관한 정보와 위키피디아가 수록한 독도 관련 정보, 개인이 운영하는 독도 블로그, 한국관광공사의 독도 정보 순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위키피디아 정보를 클릭(https : / / en. wikipedia. org/ wiki/ Liancourt_Rocks)하면 “독도 위치는 ‘일본해’(Location : Sea of Japan), 관할은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 (Town : Okinoshima, Shimane Japan)라는 내용이 나온다.

‘takeshima’를 검색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는 ‘dokdo’와 같지만 세 번째는 일본 외무성이 홍보하는 다케시마 관련 정보를 노출한다.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외교부 사이트는 검색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 이 사이트에서 두 단어를 검색하면 독도를 ‘Liancourt Rocks’(리앙크루 록스)로 표기한 위키피디아 사이트가 연동된다.

반크 관계자는 “위키피디아 사이트는 구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만, 구글 검색 첫 화면에 보여주는 정보 요약 내용은 구글이 편집하는 것”이라며 “독도와 관련한 구글의 편집 행태는 일본이 왜곡해 홍보하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길…APEC 정상회의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차 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차 7박8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1~12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해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를 한다. 이어 9일에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과 방산 인프라, 경제 통상, 북핵 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10일에는 베트남 다낭으로 건너가 APEC 기업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대화하고 11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이어 베트남과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며, 13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4일 오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아세안+3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날 오후에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는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회담이 예정돼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전남 관광지 방문객 1위는 ‘순천만’

지난해 543만명 다녀가…여수 엑스포공원·오동도 뒤이어

광주·전남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관광지는 순천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지난해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에 입장한 관광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543만20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이 307만4000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여수 오동도 280여만명, 여수 돌산 공원 247만2000여명으로 3, 4위를 기록했다. 이어 담양 죽녹원이 136만1000여명으로 5위를 달렸다.

관광객 100만명 이상 관광지 중 여수가 3곳을 차지해 관광도시 명성을 입증했다.

여수 아쿠아플라넷 94만6000여명, 순천 낙안읍성 민속 마을 86만6000여명, 곡성 섬진강 기차 마을 76만3000여명, 목포 국제축구센터 73만5000여명, 함평 엑스포공원 59만6000여명,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56만9000여명, 여수 향일암 52만5000여명 등이 관광객 50만명을 넘어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억, 투자시
월 300만원씩 지불, 1분
▪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 경매 진행 물건
▪ 전화상담 사절
오천경매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송정리 부동산 매물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투자가치의 3개소
▶ 11억, 12억, 19억
▶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대형부지 (만오천평)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

기독대안학교
입학설명회
미국연수
2018년 1월 21일~2월 10일
함께 설명
일시 : 2017년 11월 25일(토) 11:30
문의 : (061)381-0000
TALK 광주국제기독스쿨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